

보수적인 벤투가 변화를 예고했다...어떤 전술 내놓을까

벤투, 평가전 앞두고 "이전과 다르게 경기"

이강인·손준호 투입 통한 중원 변화 예상

파울루 벤투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카타르 월드컵 전 마지막 평가전을 앞두고 전술 변화를 예고해 파장이 일고 있다.

벤투 감독은 지난 19일 오후 파주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에서 소집 훈련을 시작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우리 플레이를 발전시키면서 준비할 것이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경기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벤투 감독은 이어 "다른 것들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경기에서 직접 보여드리겠다. 첫 경기까지 시간이 있다"며 "일단 현재 생각은 다른 것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훈련을 통해 체크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벤투호는 오는 23일 코스타리카, 27일 카메룬을 상대로 월드컵 최종 모의고사를 치른다. 벤투호는 코스타리카를 가상의 우루과이, 카메룬은 가상의 가나로 여기고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자신의 지론인 빌드업 축구를 주장하면서

변화에 인색하던 벤투 감독이 전술 변경을 언급하면서 최근 해외 언론 매체의 관심이 새삼 주목을 받게 됐다.

지난 17일 프랑스 매체 '위 스포츠'는 "한국은 벤투 감독에 의해 4-1-4-1, 4-4-1-1, 4-4-2, 4-3-3 등 실제 A매치에서 사용한 전술을 늘려가고 있다"며 "카타르 월드컵 상대 국가들은 (한국이) 어떤 시스템을 사용할 것인지들 거의 확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벤투 감독이 언급한 변화가 중원 쪽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강인(마요르카)과 손준호(산둥 타이산)를 투입함으로써 그간 유지돼온 이재성(마인츠)-황인범(울림피아코스)-정우영(알 사드) 체제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창의성과 기술, 공격력을 갖춘 이강인을 중원에서 활용하는 방안, 손준호와 정우영을 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20일 경기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에서 경기장을 돌며 몸을 풀고 있다. 벤투호는 오는 23일 코스타리카와 고양종합운동장에서, 27일엔 카메룬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평가전을 치른다.

비형 미드필더로 동시에 활용하는 방안, 이를 통해 황인범을 전진 배치해 공격력을 살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뉴스



수영 천재 황선우, 고산 훈련...“기록 향상 기대”

튀르키예 에르주름주 해발 2100m “고지대 훈련하다보니 숨 많이 차”

'수영 천재' 황선우(19·강원도청)가 튀르키예 에르주름주에서 고산지대 전지 훈련 중이다. 황선우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는 황선우가 지난 6일부터 2주째 강원도청 소속 수영 선수 6명과 함께 고산지대 훈련차 튀르키예 에르주름주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보은 감독이 이끌고 있는 강원도청 수영 팀은 심폐능력과 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지대 훈련을 계획했다.

훈련은 에르주름주 해발 2100m 고지대에 있는 훈련장(High Altitude Swimming Camps)에서 약 3주간 진행된다. 독일 프로 수영팀

(Oneflow Aquatics)과 합동 훈련이 이뤄진다.

황선우는 하루 1만2000~1만3000m 수영 훈련을 하고 있다. 코어 훈련을 중심으로 한 강도 높은 웨이트 훈련도 병행 중이다.

황선우는 "고지대에서 훈련을 하다 보니 숨이 많이 찬다. 수영을 할 때도 평소와 같은 페이스임에도 더 힘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 훈련 첫 주에는 고생을 했다"며 "2주 정도 훈련을 하니 몸이 적응을 했다. 훈련을 마치고 돌아 가면 기록적인 부분에서 향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선우는 또 "외국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는 것이 처음"이라며 "같이 운동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지내니 시너지 효과가 더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

도루왕 앞둔 KIA 박찬호...생애 첫 30도루 도전 SSG 최지훈

키움 김혜성, 2년 연속 도루왕 도전하다가 손가락 골절 부상...KT 심우준 도루성공률 90.9%



KIA 박찬호가 도루에 성공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내야수 박찬호(27)가 3년 만에 '도루왕'을 앞두고 있다.

박찬호는 올해 116경기에 출전해 타율 0.275에 44타점 70득점 36도루를 기록했다. 커리어하이 시즌을 보내면서 팀내 타격 4위에 올랐다.

실책이 많고, 간혹 치명적인 실수로 저지르지만, 아직 발전 가능성이 있다. 박찬호는 타격에서 잠재력이 있고, 주루플레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9년 39도루를 기록해 도루왕에 올랐던 박찬호는 올해 생애 첫 40도루 달성과 함께 타이틀을 노리고 있다.

박찬호는 상대 내야와 배터리의 허를 찌르면서 폭발적인 스피드로 선보이는 도루가 인상적이다. 도루 성공률은 81.8%이며, 도루 실패가 8개로 다소 많은 편이다.

지난해 46도루로 타이틀을 차지했던 키움 히어로즈의 김혜성은 8월31일까지 34도루를 기록해 2년 연속 도루왕에 도전했지만, 9월 초 손가락 골절 부상을 당해 당분간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김혜성은 재활에 전념하면서 정규 리그에서 복귀를 노리고 있다. 키움은 현재 3위를 달리고 있고, 포스트시즌에서 뛰기 위해서 단 몇 경기라도 뛰어 컨디션을 끌어올

린다는 계획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시즌 막판에 돌아와 도루 몇 개를 더 추가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키움 관계자는 "선수 본인의 복귀 의지가 커서 9월 말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골절된 부위에 뼈만 붙었다고 하면 바로 기술훈련에 돌입할 것이다"고 밝혔다.

올해 도루 부문에서 눈에 띄는 선수는 SSG 최지훈이다.

최지훈은 올해 27도루를 기록해 생애 첫 30도루를 바라보고 있다. 최지훈은 생애 첫 3할 타율을 유지중이며, 30도루에 근접해 의미있는 기록에 도전하고 있다.

삼성 라이온즈 김지찬은 허벅지 근육 손상으로 약 40일 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지만 24도루를 기록했다. 3년 연속 20도루를 선보였다. 생애 첫 30도루에도 도전하고 있다.

올해 도루 10위권 선수중 도루 성공률이 가장 높은 선수는 KT 위즈의 심우준이다. 심우준은 22차례 도루에 도전해 20번 성공해 성공률이 90.9%에 달한다.

'호타준족'의 대명사인 20(홈런)-20(도루)을 달성 선수도 있다.

LG 트윈스 오지환은 생애 처음이자, 올 시즌 KBO리그 첫 20-20을 달성하기도 했다. 오지환은 24홈런 20도루를 기록했다.

현재 25홈런에 15도루를 기록한 삼성 외국인 타자 호세 피델라를 도루 5개를 추가하면 20-20에 성공할 수 있다.

장성호, KBO 레전드 41위...이호준42위·정명원 43위

이범호·김재현·류중일 등 레전드 선수들 아쉽게 40위 밖으로 밀려

KBO(총재 허규연)는 KBO 리그 40주년을 기념해 팬 투표 및 전문가 투표로 선정한 '레전드 40인'의 명단을 올스타전 현장에서 최다득표 선수 4명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19일까지 10주에 걸쳐 발표했다.

40주년 기념이라는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해 40명을 주인공으로 선정했지만, 투표 결과 근소한 차이로 40인에 포함되지 못한 또 다른 위대한 선수들이 있다. KBO는 투표에서 41위~50위에 오른 선수들을 소개한다.

종합 투표결과 단 0.32점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41위에 오른 주인공은 2000경기-2000타 기록에 빛나는 '스나이퍼' 장성호이다.

장성호는 팬 투표에서 28만5578표, 전문가 투표에서 69표를 받았다. 팬 투표에서는 40위 타이론 우즈(24만7116표)에 앞섰지만, 전문가 투표(우즈 71표)에서 뒤지며 총 점수 40.61로 (우즈 40.93점) 우즈에게 간발의 차이로 밀렸다.

42위는 통산 337홈런을 기록한 이호준이다.

통산 2053경기에서 1880안타 1265타점으로 활약하며 오랜 기간 팬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은 주인공이다. 특히 SK와 NC에서 주장을 맡으며 클럽하우스 리더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43위는 태평양과 현대에서 마무리 투수로 활약한 정명원이며, 44위는 17개의 만루 홈런으로 KBO리그에서 가장 많은 만루 홈런을 때린 이범호다.

레전드 45위는 LG 신바람 야구의 주역이자 SK 왕조를 이끌었던 '캐년히터' 김재현, 46위는 역대 최고 유격수 계보에서 빠지지 않는 류중일이다. 47위는 삼성에 첫 한국시리즈 우승을 안긴 2002 한국시리즈 끝내기 홈런의 주인공 마해영, 48위는 '불멸의 대기록' 100완투를 기록한 윤학길이다. 49위는 통산 134승을 기록한 김원형이며, 50위는 삼성에서만 16시즌 연속 세자릿 수 안타를 기록한 박한이가 이름을 올렸다. 뉴스

순천대 우수부 조의민 산타 최강자 등극

제15회 전국산타선수권 및 제21회 전국태극권대회 남자대학부 -65KG(산타) 1위

국립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 우수부 조의민(순천대 3년)이 제15회 전국산타선수권대회 및 제21회 전국태극권대회에서 남자대학부 -65kg(산타) 1위에 오르며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최근 경북안동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강원도립대학소속 황규민과 결승전에서 만난 조의민은 1라운드 콜드게임(12점차 이상)으로 남자대학부 -65kg(산타)에서 최강

자 자리에 올랐다. 순천대 조의민 선수는 "현재 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전국체전 준비에 매진하여 전국체전에서 순천대와 저를 계속해서 알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순천대 우수부 감독 문한식 교수는 "앞으로 남은 전국체전 등 많은 대회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의민은 경주공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0년 순천대학교 체육특기자(우수)로 입학한 뒤 수많은 대회에서 성적을 내며 이름을 알리고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동강대 포수 박민준, 두산 유니폼...4년동안 5명 배출

광주 동강대학교 야구부 포수 박민준(20)이 최근 열린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에 지명돼 4년동안 5명의 선수를 배출했다.

20일 동강대에 따르면 최근 열린 KBO 신인 2차 드래프트를 통해 포수 박민준이 두산 베어스에 지명돼 2023시즌 활약이 기대된다.

박민준은 마산동중-마산용마고를 거친 박민준은 183cm·88kg 체격으로 지난해 동강대에 입학해 2년동안 안방을 책임졌다.

이로써 동강대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5명의 프로야구 선수를 배출한 대학 팀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19년 투수 나용기와 2020년 포수 백



현중이 KIA 타이거즈에 입단했으며 지난해에는 투수 조정호·김주완이 각각 SSG 랜더스(당시 SK 와이번스), 두산 유니폼을 입었다. 조정호는 조요한으로 이름을 바꾸고 현재 SSG 마운드를 지키고 있다. 또 현재 KIA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준표와 김지훈도 동강대 출신으로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지명됐다.